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2)

기획연재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 된 지 오래이다. 특히, 고등교육 영역에서의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달 그리고 고급 인력자원 양산을 위한 핵심 사안이다. 세계화의 선도 국가인 미국이 교육 영역의 세계화 진행 과정에서 고등교육을 어떻게 국제화하였으며, 어떠한 고등교육 정책과 전략으로 세계화를 추진하였는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대학교육지 159호(5·6월호), 기획연재: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1)에 이어서는 내용입니다.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2)

이정규 | 전 캐나다 센트랄 칼리지 학장

IV.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정책과 전략

1.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미국 고등교육의 확산과 국제 유학생의 이동성(Mobility)을 중심으로

19세기 말에 이미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분화와 더불어 연구중심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은 인문 및 사회과학 위주의 단일 기능의 “university”에서 과학 및 실용기술을 포함하는 “multiversity”(다기능대학)로 변환되고 있었다 (Goodchild & Wechsler, eds., 1989, p. 19).

20세기에 이르러 양대 세계대전(World War I & World War II)을 겪으면서 미국의 국력 신장과 연방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고등교육은 양적으로 더욱 팽창해졌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욱 우수하게 된다. 대표적인 연방 정부의 지원 사례를 들자면,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동안 ROTC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1929년에 시작)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국가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동안 연방 정부 주도의 공학, 과학, 및 경영분야 연구 프로젝트(project)에 선도 연구중심대학들이 참여하고,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the Korean War: 1950-1953) 후 제대 군인들에게 대학 교육 자금이나 주택 자금의 급부를 정한 “The G.I. Bill of Rights”(제대 군인 원호법)를 제정함으로써 많은 제대 군인들이 고등교육의 이수 기회를 갖게 되었다(Goodchild & Wechsler, eds., 1989, pp. 627-230; Kerr, 1995, pp. 39-40; Kerr, 1989, p. 502).

이와 같은 연방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고등교육은 전문화와 대중화에 가속이 붙게 된다. 즉, 국력 신장과 더불어 세계 강국으로의 부상(浮上), 산업화 시대를 맞아 과학 기술



지식의 팽창, 직업의 세분화 및 사회생활의 다양화로 인한 전문지식 습득과 인력수급 증대, 기술·직업교육의 필요성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및 고등교육 접근(access) 증가 등의 요인으로 대학과 학문의 비대화 및 다양화, 그리고 교과과정의 광역화와 세분화, 전문화와 특성화로 고등교육기관이 더욱 다양화, 특성화 및 보편화되었다.

기존의 교양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 신학교(seminary), 4년제 일반대학(university) 외에,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교육기관(research-oriented university 혹은 research university)과 함께 일반인의 직업 기술 습득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용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기 위한 기술 직업 전문교육 기관인 “junior college”(전문학교) 혹은 “community college”(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학)의 설립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의 지원을 받아 각 주에 확산되었다. 각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의 확산은 미국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초기에 과학적 탐구와 경험주의(experimentalism)를 중시하는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적 철학”(pragmatic philosophy)의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progressivism) 교육 운동과 함께 대학의 연구와 사회봉사 기능을 강조한 위스콘신대학(The University of Wisconsin)의 “Wisconsin Idea”(위스콘신 이념)는 고등교육을 사회생활에 융합시킴으로써 대중의 고등교육 기회와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고등교육의 실용화와 대중화를 촉진하였다(Gutek, 1972, p. 385; Kerr, 1995, p. 12).

앞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주정부 주도로 고등교육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연방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간

접적 지원, 즉 연구 프로젝트(research project), 건설, 등록금 혜택 등의 보조금에 힘입어 미국 고등교육은 질적 및 양적으로 크게 신장할 수 있었다.

미국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이었다(Goodchild & Wechsler, eds., 1989, p. 20). 양대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은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United Nations”(국제연합)의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가일층(加一層) 높게 되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 그리고 연방주의(federalism)와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에 기초한 다민족 복합문화 국가로서 세계 최강국이 된 미국은 교육,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연예 활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중심지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다.

특히, 세계 강대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독립한 신생 국가들과 국가 발전을 위해 산업화와 서구화를 추구하는 세계 각 대륙의 비산업화 내지 후발 산업화 국가들에게 고등교육은 필연적 도구로 인지되었고 미국 고등교육은 이상적인 모델이었다. 미국 고등교육의 철학, 행정 체제, 조직 그리고 교육과정은 미국 정부의 교육 원조단체와 미국 중심의 여러 국제협력기관을 통해 이들 국가에 이식되거나 소개되었고, 이런 교육원조단체와 국제협력기관 및 자비(自費)와 국비 유학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 국가에서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미국 대학의 교정을 밟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고등교육의 확산 정책은 산업화된 국가들이나 아직 산업화되지 않은 국가들 양자 모두에게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었다. 전자는 새로운 과학 기술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확산시키고 고급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질

적 및 양적 제고를 도모한 반면, 후자는 자국의 산업화 내지 근대화를 위해 미국식 고등교육 제도의 도입과 대학 설립을 우선적인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엔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국민이 국비 혹은 개인 비용으로 미국 대학에 등록하여 선진 학문과 과학 기술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유학(留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그리고 전자 또한 교육, 과학, 공학, 의료, 기술, 건설, 무역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신흥 강국인 미국의 선진 지식과 기술을 자국에 이식시키기 위해 미국으로의 유학을 장려하였다(Goodchild & Wechsler, eds., 1989, pp. 18-19). 이러한 유학 기조는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The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미국의 3,000여 인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The 2007 Open Doors Survey”(2007년도 문호 개방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2006/07학년도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270여만 명(미국 학생 제외시 250여만 명)이 해외 유학을 위해 자국을 이동하였으며, 그중에서 582,984명(지난 7년 동안 매년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Bhandari & Koh, 2007; Chow & Marcus, 2008; IIE, 2008). 이는 1954/55학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수 34,232명에 비하면 약 반세기(53년) 동안 17배나 증가된 수치이다(Bhandari & Koh, 2007; Chin, 2006; Chow & Marcus, 2008). 제2차 세계 대전 이래로 미국은 명실 공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선진 학문과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소위 “유학의 메카(Mecca)”로서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이 2003년 이래로 매년 발간하는 “세계 500대 대학”

평가 결과에 의하면, 세계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The World’s Top 100 Universities”(세계 100대 상위권 대학)에 거의 매년 미국 대학은 절반 이상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올해(2008년)도 예외 없이 세계 상위 20위 대학 이내 순위엔 18개 대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Goodall, 2006 한국대학신문, 2008).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지만, 아시아(Asia)는 최대 “국제 학생 이동”(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지역으로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등록 유학생의 59%를 점유하고 있고, 이 수치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Bhandari & Koh, 2007; Chow & Marcus, 2008 IIE, 2008). 6년 연속으로 인도는 83,833명(2006-07년도)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2위로 67,723명, 한국은 3위로 62,392명을 나타내고 있다(IIE, 2008). 이를 국가별 총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명실 공히 한국은 인도와 중국을 능가하는 미국 유학생 송출국이다. 지난 30년 이상 미국 국무부의 “Open Doors” 자료(data)에 의하면, 2006/07학년도 조사 기준으로 지난 1976/77년에 비해 미국 유학생의 여학생 비율은 45%를 나타내어 14%가 증가하였고, 독신 유학생 비율은 87%로 13% 증가하였다(Chow & Marcus, 2008). 그리고 2001/02년도 이래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비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41%, 그리고 나머지 14%는 비학위 과정이나 자격증 혹은 어학이수과정 등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Chow & Marcus, 2008).

지난 5년 동안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국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부한 분야는 경영학(18%)과 공학(15%) 순이었지만, 공학, 컴퓨터 과학, 수학, 물리학 분야에서 모든 박사 학위 수여자의 반 이상을 국제 유학

생들이 점유하였다(Chow & Marcus, 200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08). “The 2007 Open Doors Survey”의 결과에 의하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은 미국의 50개 주 전역에서 공부하고 있으나, 156개 대학에 각각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고, 유학생의 대표적인 선호 지역으로는 캘리포니아주(77,987명, 전체 유학생의 13%)와 뉴욕주(65,884명, 11%)이다(Chow & Marcus, 2008). 그리고 국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한 대학은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7,115명)이고, 다음이 Columbia University(5,937명)이다(IIE, 2008). 국제 유학생들이 대학의 학부과정에 등록한 비율은 미국 전체 등록생수의 4%에 불과하지만, 대학원과정에 등록한 비율은 12%에 이르고 있다(Bhandari & Koh, 2007).

국제 유학생들의 미국 아카데미(academia)에 대한 기여에 더하여, 미국의 지방, 주,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The 2007 Open Doors Survey”에 의하면, 국제 유학생들은 학비와 교육비 및 생활비 등으로 2005/2006학년도에 약 135억 달러(US\$ 13.5 billion)(Bhandari & Koh, 2007), 그리고 2006/07학년도에 약 145억 달러(US\$ 14.5 billion)를 지출하였다(IIE, 2008). 이 지출금의 주 재원은 전체 유학생의 약 74%에 이르는 유학생들 개인의 자비(自費) 혹은 가족의 지원금이며, 그리고 나머지 26%는 등록된 학교에서 조교 수당(teaching & research assistantships)이나 정부 보조금(grants) 혹은 장학금으로 지급된 비용이다(Bhandari & Koh, 2007).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요약하자면, 미국 고등교육의 확산은 몇 가지 중요한 요인에 귀착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종교적

요인으로, 신구 기독교의 복음화 내지 기독교화를 위한 사립종립학교의 팽창을 가져 왔고, 문명사적 흐름의 요인으로,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화와 미국에서 육성된 과학기술 시대의 도래는 미국 고등교육의 특성화와 전문화 및 보편화를 진작시켰다. 사상적 요인으로,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평등주의(egalitarianism), 공리주의(utilitarianism) 및 실용주의(pragmatism) 사상, 그리고 미국에서 발전한 경험주의(experimentalism)와 진보주의(progressivism) 사상의 영향을 받아 대학은 보편화, 다양화, 대중화 및 양성교육을 촉진하였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democracy) 토대에 미국식 연방주의(federalism)를 접목시킨 정치 제도는 주 정부가 교육을 책임지고 연방 정부가 재정과 제도적으로 간접지원을 하는 분권주의적 교육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립대학과 연구중심대학의 확산을 가져 왔으며, 그리고 양대 세계 대전의 여파로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고양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로 미국의 고등교육은 세계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기독교를 수용하여 미국화 과정을 거쳐 현대 고등교육기관의 모델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미국의 대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 학생들의 “유학의 메카” 그리고 “세계화의 전초 기지”로서 “세계화 깃발”을 필력이게 되었다.

2.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정책과 전략: 변화와 도전

21세기 진입 후에도 고등교육의 대중화, 전문화, 특

성화 및 다양화를 이룩한 미국 대학은 세계 고등교육의 모델과 표준으로서 “세계화 깃발”을 날리며 여전히 세계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바람과 지식기반사회의 시대적 파도가 격해지는 21세기를 맞아 미국대학의 세계화 정책과 전략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 대학들이 세계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 대학이 국제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곳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21세기 들어 세계 시장에서 교육의 상품화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06년 1월에 타결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GATS(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결정에 따라 교육 분야(education sector)도 건강(health), 문화(culture) 분야와 더불어 세계 경제 체제하에 자유 교역 품목으로 규정되었다(Bassett, 2006; Knight, 2006).

세계 시장에서 교육의 자유 교역 품목으로서의 지정은 국제 학생 유치에 독주하던 미국 고등교육 시장에도 새로운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몇 년 전부터 미국 대학들의 국제 학생 유치 실적은 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에서, 대학원 과정보다는 대학의 학위 과정이나 전문대학의 준학위(associate-degree) 과정에서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Cummings & Bain, 2006). 이런 현상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제 학생들의 유학 목적이 단순히 미국대학에서의 언어 학습이나 일반적 지식과 기술 습득이 주류를 이루던 시점을 떠나 전문적인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함으로 점차 수월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유학비용과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 미국

정부 혹은 대학의 재정적 혜택이나 보상이 부여되는 대학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01년 9월 11일(911) 테러사태 이후 국제 학생 비자(visa) 검토 과정이 엄격해지고 발급 또한 지체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다수의 이슬람교도(Muslim) 학생들과 상당수의 국제 학생들은 미국 대신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다른 국가를 선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Chin, 2006). 미국 국무부의 “The Open Doors Report on International Exchange”(국제 교류에 관한 문호 개방 보고서)에 의하면, 911 테러사태 이후 몇 년간 국제 유학생 수치는 감소세를 보여 왔다(Chin, 2006; IIE, 2008).

지금까지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2000년 클린턴(Clinton) 행정부의 “Memorandum on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국제 교육정책적요(摘要))를 제외하고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별도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주로 재정 확보나 지원을 위한 법 제정(고등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Title VI Programs, Fulbright-Hays Programs, National Security Education Program 등)이나 몇몇 국제협력기관(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US Information Agency, & the Peace Corps)을 설립/운영하고, 고등교육의 세계화는 현재까지 주로 개별 대학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Hayward, 2000 Holzner & Greenwood, 1995).

주정부 또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 경제나 상업 그리고 노동력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방 정부와의 협조기관으로서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주로 주립 대학)의 국제교육을 고취하고 주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축으로 국제교육위원회나 국제교육 관련조직(예: The Pennsylvania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Massachusetts CIE, Oregon, Texas, Virginia 등)을 운용해 오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서 국제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연구 개발 지원 협력, 지역/언어관련 연구 지원 및 장려, 국제 학생 및 학자를 위한 지원 및 교환프로그램 운용, 해외 우수 학자 초빙, 우수 교수 채용 및 보상제도 개발,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공사립기관과의 제휴(partnerships), 국제 연구 및 교육 협회(international studies and education consortia) 창설, 국제 기금 조성 등이다(Hayward, 2000; Holzner & Greenwood, 1995).

미국 교육협의회(American Council on Education)가 밝힌 자료(ACE's 2006 data)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 세계화는 우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상당수의 미국 대학들이 국제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실행 과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조사 대상 대학(2,700여 개)의 21%는 “internationalization plans”(국제화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Childless, 2006 Edmonds, 2008). 일반적으로 각 고등교육기관은 그들 대학의 특성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비 보조금(장학금이나 연구보조수당 등)을 제공하면서 유학생을 유치해 왔다. 따라서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주도의 정책이나 전략에 관계없이 각 대학의 특성과 사명, 시대적 양상에 따라 다르게 입안되고 실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위상과 최대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식 고등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및 우수성을 선보이며 세계 8대 유학생 유치국--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가운데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Chow & Marcus, 2008). 그러나 1999/2000년부터 2004/05년도 기간에 미국의 국제 학생 등록 증가 비율(17%)은 다른 경쟁적 유학생 유치국들(영국 29%, 독일 46%, 프랑스 81%, 호주 42%, 일본 108%) 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Luu, Bain, & Green, 2007).

2006년 고등교육을 자유교역 품목으로 간주한 GATS 결정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가일층(加一層) 고등교육을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한 필수적 도구나 수단으로 재인식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질적 고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의 국가 주도적인 고등교육의 세계화 대처 동향에 편승하여, 미국은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 주도로 세계의 교육 개방화를 주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대학 주도로 고등교육의 국제화 및 상품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월성 제고와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대학이 상호 협력 체제를 이룩하여 세계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의 상황과 도전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how & Marcus, 2008). 예를 들면, 정부는 대학의 수월성 진작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이민법을 개선하여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국제 유학생들에게 보상 혜택을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는 일 등이다(Jaschik, 2005).

미국이 각 대학만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국 내지 국제 학생들의 수요 체제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의 공급 체제와 보상 혜택 또한 경쟁국가 보다 용이하면서도 다양하고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고등교육 시

장의 특성이 이전처럼 각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육성이나 확산 위주의 단순한 수요 체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표어 아래 대학의 수월성과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 체제로 변화였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국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의 개방화, 상품화 바람으로 고등교육은 서비스 품목으로 분류되어 타 상품과 함께 소위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국제 학생 유치국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대학” 혹은 “저비용 고품질 대학”을 선보이지 않으면 국제 학생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끌 수 없게 되었고, 국제 학생 송출국들의 입장에선 이들의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소위 “top-class research university”(선두 연구중심대학) 혹은 “world-class university”(세계적 수준의 대학)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바람과 함께 불어 닥친 정보통신기술과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인터넷과 영어를 통한 고등교육 접근의 용이성과 이로 인한 대중화, 지식의 개방화 및 보편화, 그리고 학문과 과학의 “virtual global community”(가상적 세계화 사회)의 조성은 고등교육 시장의 급속한 개방화와 거대화를 예고하며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Altbach, 2008).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국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각 대학 주도로 국제 학생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도록 수학(修學)단계에 따라 다양한 프로

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부 지원금과 대학 기금을 통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외국에 분교를 설치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나 학생을 다른 나라로 교환하거나 유학을 보내는 일과 같은 사안들이 일부 진척되고 있거나 권고되고 있다(Eaton, 2008; Whalen, 2008). 또한, 연방 정부는 비자 발급 개선책과 함께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 개방화 추진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적 우월성을 선점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표준화와 국제 인증 체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V. 시사점 및 결론

본고의 마지막 장으로, 우선 앞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시대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미국 고등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화 정책과 전략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정책 입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후 간략히 결론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주요 세계화 정책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개별 대학이 주도하던 대학 차원의 세계화 전략에서 탈피하여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세계화 정책과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과 정부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미국 유학을 바라는 국제 학생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용이성을 진작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의 비자 발급 개선책이 선급하며, 또한, 국제 유학생들의 유학비용을 절감하거나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및 보상 정책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Bhandari & Koh, 2007; GlobalHigherEd, 2008).



둘째, 세계화의 주도 국가로서 미국의 연방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세계의 고등교육 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Bassett, 2006). 이런 맥락에서 국제기구(UNESCO, OECD 등)에서 주도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표준화와 교육제도의 표준화 및 학위 인정 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국제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대학은 우선 사안으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이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의 다문화적 지구화 사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Edmonds, 2008).

넷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미국의 과학과 기술력을 유지하고 직업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특히 연구 중심대학)에 대한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개발비 확충과 더불어 미국 교육제도를 수월성 중심으로 개선하고, 해외의 고도로 숙련된 인적자원(고급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민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GlobalHigherEd, 2008).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인의 매력을 끌 수 있도록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과 연구의 표준을 정하기 위한 책무제도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Jaschik, 2005).

다섯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세계 고등교육 시장에서 이미 필수 도구가 된 인터넷과 세계 공용어가 된 영어를 통한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 메타 유니버시티(meta-university) 등의 이름으로 “virtual global community”(가상적 세계화 사회)의 구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고등교육의 기능을 확대시켜 평생교육과 직업

전문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Altbach, 2008 Vest, 2006).

본고에서 저자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발원부터 확산 및 국제화 과정을 고찰하고, 미국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새로운 주요 세계화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釋明)하였다.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연구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등교육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의 세계화 정책과 전략에서 탈피하여 각 대학에 국제화를 위한 자율권 부여와 함께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의 역할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인 법 제정, 적극적인 재정 지원, 협력 기관 설립,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적 추세인 고등교육의 개방화 내지 상품화 움직임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여 국가의 이익과 고등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국가적 지역 단위(예: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립하며 아울러 대학 구성원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의 일환으로 해외 분교 설립, 영어 전용 강좌 운용, 국제이해교육,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각 지방 행정 당국은대학과 더불어 국가적 및 지방 차원에 적합한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제도를 확립 혹은 개선하고, 아울러 현재의 “World-Class University (WCU) Project”(세계적 수준대학 육성 사업)를 확대하여 수도권과 각 지방에 선도 고등교육기관(20여 개 대학)을 지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책무성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의 수월성 제고와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위인정제도 확립과 책무성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선행하여 대학교육행정에서 교육과정에 이르는 고등교육체제(특히 대학원교육제도)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내지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제 고등교육 시장에서 매력력을 끌 수 있는 “양질의 고 품격 고등교육”을 산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실용학문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고급 인력 산출을 위해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적인 학식과 탁월한 연구 능력을 지닌 우수한 교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전문인력 관리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원임용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일곱째, 선진 학문과 고급 과학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의 유학(고등교육기관)이나 연수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Study Korea Project”(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계획)와 금년 여름(2008년 8월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WEST) Program”(어학연수와 인턴 취업 및 여행을 연계한 프

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그리고 외국 학생과 교수들이 한국 대학에서 학문과 기술을 교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정보통신기술과 지식기반경제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대학 구성원들은 인터넷과 영어의 능숙한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한 “가상적 세계화 사회”(virtual global community)화와 “메타 대학”(meta-university) 조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평생교육과 직업전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저자는 미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문명사적 조류인 세계화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다. 고등교육의 세계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나친 상업화, 교육의 도구화 및 상품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공교육의 황폐화,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 및 과도한 조기유학 열풍, 학문의 종속화 내지 사대화, 부실한 학위 양산으로 인한 학력의 가치 하락, 우리 문화의 정체성 상실, 과학기술 위주의 실용교육으로 인한 인문학 고사, 학력/학벌 위주의 엘리트주의와 “간판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편만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사회, 대학, 개인 모두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 이 Position Paper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RR 2008-04), <세계화 시대의 교육제도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원고로 작성/출판된 것임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Allbach, P. G. (2008). Globalization and Forces for Change i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50, pp. 2-3.
- Bassett, R. M. (2006). *The WTO and the University: Globalization, GATS, and American Higher Education*. New York, NY: Roulledge.
- Bhandari, R. & Koh, H. (2007).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Picture,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7, pp. 9-10.
- Brazun, J. (1993). *The American University: How It Runs, Where It Is Go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ldress, L. K. (2006). Internationalization Plan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Development and Monitoring of Written Commitments to Internation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Anaheim, CA, Nov. 1-4, 2006), ED493863.
- Chin, H. K. (2006). The New Landscape of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3, pp. 9-10.
- Chow, P. & Marcus, R. (2008).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and the United States: The 2007 Open Doors Surve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50, pp. 13-14.
- Cremin, L. A. (1989). The Education of the Educating Professions, in Goodchild, L. F. & Wechsler, H. S. (eds.). *ASHE Reader on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Simon & Schuster Custom Publishing.
- Cummings, W. & Bain, O. (2006). Where Are the International Students Going?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3, pp. 11-12.
- de Wit, H. & Knight, J. (1997).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Luna Negra, Amsterdam: EAIP.
- De Wit, H. (200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Oxford: Greenwood Press.
- Eaton, J. S. (2008). US Accreditation: Bridging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Dialogue Gap,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50, p. 16.
- Edmonds, K. (2008). Colleges and Universities Make Uneven Progress in Internationalizing Their Campuses, *ACE Analysis Find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http://www.acenet.edu/AM/PrinterTemplate.cfm?Section=Press_Releases2...
- Accessed on June 24, 2008.
- GlobalHigherEd (2008). Surveying US Domina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http://globalhighered.wordpress.com/2008/06/16/> Accessed on June 16, 2008.
- Goodchild, L. F. & Wechsler, H. S. (eds.) (1989). *ASHE Reader on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Simon & Schuster Custom Publishing.
- Goodall, A. (2006). The Leaders of the World's Top 100 Universities,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2, p. 3.
- Gutek, G. L. (1972). *A History Western Educational Experience*. Prospect Heights, Illinois: Waveland Press, Inc.
- Hayward, F. D. (2000). *Internationalization of U.S. Higher Education: Preliminary Status Report 2000*.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CE).
- Holzner, B. and Greenwood, D. (1995). The Institutional Policy Contexts for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Amsterda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EAIE).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 (2008). *Open Doors 2007: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http://opendoors.iienetwork.org/?p=113743>, Accessed on June 24, 2008.
- Jaschik, S. (2005). A Nation's Colleges at Risk,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0, p. 16.
- Kerr, J. C. (1989). From Truman to Johnson: Ad Hoc Policy Formulation in Higher Education. In Goodchild, L. F. & Wechsler, H. S. (eds.). *ASHE Reader on The History of Higher Education*. Needham Heights, MA: Simon & Schuster Custom Publishing.
- Kerr, C. (1995).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Knight, J. (2006). GATS: The Way Forward after Hong Kong,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3, p. 12.
- Lee, J. K. (2004). Globalization and Higher Education: A South Korean Perspective, *Globalization*, 4 (1), pp. 1-15.
- Lee, J. K. (2005). Asiatic Values in East Asian Higher Education: From a Standpoint of Globalization, *Globalization*, 5 (1), pp. 1-14.
- Levin, J. S. (2001). Public policy, Community Colleges, and the Path to Globalization, *Higher Education*, 42 (2), pp. 237-261.
- Luu, D., Bain, O., & Green, M. (2007). Students on the Mov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47, pp. 11-12.
- Macpherson, C. B. (1962).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rginson, S. and Rhoades, G. (2002). Beyond National States, Markets, and Systems of Higher Education: A Global Agency Heuristic, *Higher Education*, 43 (3), pp. 281-309.
- Morison, S. E. (1935).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ssachusetts:
- Natural Science Foundation (2008).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Arlington, Virginia: Natural Science Foundation Board.
- Rudolph, F. (1990). *The American College and University: A History*, Athens, Georgi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Vest, C. (2006). *Openness and Glob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The Age of the Internet, Terrorism, and Opportunity*, Research & Occasional Paper Series: CSHE 7.06, Center fo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Whalen, B. (2008). The Management and Funding of US Study Abroad,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Number 50, pp. 15-16.
- 한국대학신문(2008년 8월 11일 자). 세계 500대 대학 순위, 중국 상하이자오통대학교 고등교육연구원 세계대학센터,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49028>, 2008년 8월 11일 접속.



이정규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고등교육행정을 전공하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센트럴 칼리지 학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학자(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연구본부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대학행정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국제학술지 *Radical Pedagogy*와 *Globalization & Health* 평가위원, 한국대학신문 전문위원 겸 칼럼니스트, 통일미래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America 2006-2007년판(61st Edition)과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6-2007년판(24st Edition), 영국 캠브리지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에서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 (Dictionary of International Biography)" 2008년판, 그리고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에서 선정한 2008년도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위대한 지성인들)에 등재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Korean Higher Education: A Confucian Perspective", "Historic Factors Influencing Korean Higher Education",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근원과 발달", "한국의 대학과 고등교육"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저자의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인도, 중국, OECD, UN, UNESCO의 저명한 국내외학술지에 게재 혹은 소개되었으며, 대다수의 논문은 영문으로 그리고 일부 논문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및 중국어로 출간되었다.